

## ■ 최신 해외정보 - 이란 ■

##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 태환 시 시장환율 적용

이란의 외환시스템은 외환에 대한 이란 리알화의 환율을 필요에 따라 공식환율(Official Exchange Rate)과 시장환율(Free Market Rate)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식환율은 이란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로서, 주로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특정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이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외환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6년 12월 기준 리알화 : 원화의 공식환율은 시장환율에 비해 약 15%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FIPPA)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란은행을 통해 이란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리알화로 태환할 때에는 시장환율이 아닌 공식환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중앙은행은 2016년 하반기에 외국인투자를 위해 유입된 외화 자금(FIPPA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리알화로 태환할 때 공식환율이 아닌 시장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시행 지침을 이란의 각 시중 은행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방침에 따라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화 자금에는 한국의 유로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유로화 및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는 원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태환 시 시장환율이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회사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 자금이 해당 '외국인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외환의 태환 시 공식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여전히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